

## 쌍봉사 단풍나무

**단청**이 희미해진 옛 절이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석양빛이 처마 밑을 파고들 무렵이고, 사계절 중에서는 단풍이 붉음을 토해내는 깊은 가을이라고 한다.

화순의 쌍봉사에 가면 세월에 씻겨 단청이 지워진 극락전 앞으로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있다. 깊어가는 가을철 사자산에 노을이 지면, 곱게 물든 단풍과 노을빛 극락전이 어우러져 산사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단풍나무 앞에는 대웅전이 있는데 주위 건물에 비해 단청이 유난히 짙다. 1984년, 한 신도의 촛불실화로 소실된 이후 복원된 새 건물이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 대웅전과 극락전 사이에 있는 단풍나무는 자신을 태워가면서 화마로부터 극락전을 지켜냈다.

쌍봉사 대웅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4월이었다. 3층 목조탑 구조의 대웅전과 불과 2, 30미터 거리에 있는 극락전이 연소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화세도 새봄 막 퍼져 나오는 생나무의 푸른 기운을 당하지 못하였는지,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가로막은 극락전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두 단풍나무 줄기 모두에 화상의 흔적이 크게 남아있고, 특히 극락전 오른쪽의 것은 가지도 많이 훼손되었다. 불에 견디지 못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에서 이듬해 다시 싹을 틔웠다. 수령도 제법 오래 되었을 단풍나무는 여전히 곱다. 투박하고 작지만, 듬직하게 서 있는 극락전과 조화(調和) 이상의 아름다움을 본다.

절집에서의 두 여인을 떠올린다. 강화 전등사에서... 3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절집을 뒹는다. 마루며 기둥이며, 보이는 대로 손닿는 대로 쉽 없이 걸레질을 한다. 이마에 땀이 흘러도 머리칼이 흩어져 내려도 손등으로 쓱 쓸어 올리고는 쉴 새 없이 몸을 부린다. 허름한 복색에 무표정한 얼굴, 자그마한 체구에 남은 힘을 다하여 쌓인 한을 쏟아내는 것 같다. 절이란 그런 곳인가.

화순 쌍봉사에서... 한 여인이 일주문을 들어서더니 절 뜰에서 소리 없이 운다. 지나가던 스님이 짙막하게 한 마디 건넨다. "실컷 울다 가세요."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호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고는 언제 울었느냐 싶게 총총히 사라진다. 절이란 그런 곳인가.

한 여인의 모습은 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 여인의 행적은 귀로 들었다. 종교나 제도가 그 땅의 문화가 되려면 적어도 500년이 흘러야 한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얼마간 무속적이고 불교적이며 유교적일 것이다. 불교신자가 아니어도 절집은 그래서 편한 것일까.

사찰이 아닌 그냥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아니 때로는 사는 게 팍팍할 때 아무렇지 않게 울고 갈 여인을 위하여, 이제 저 깊은 산속 쌍봉사에도 옥외소화전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절집 주위에는 방화대(防火帶)가 만들어져 있으며, 자세히 보니 사찰 주변에는 쉽게 타지 않는 수종으로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조성되어 있다.

〈김동일/소방기술사·(주)한국소방 전문〉